

## 승전보(勝戰譜)를 올리는 그날까지



조용환 편집상무  
축산신문

전 세계는 종자전쟁(種子戰爭)이 한창이다.

각국은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유전자원의 선점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소유권 분쟁마저 심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가축개량과 육종이 특정품종으로 집중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고유의 다양한 유전자원확보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연구기관과 단체·농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며 그럴 때 성과는 배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우와 젓소·돼지를 개량하는데 중요한 등록·심사·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역할은 아주 크다 하겠다.

십 수 년 전만해도 일부 축산인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종축개량단체도 선진국처럼 축종별로 전문화하거나 품종별로 세분화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그 주장은 한국종축개량협회를 대한한우개량협회와 한국젓소등록협회, 한국종돈개량협회 등으로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물며 일부농가는 미국·영국·캐나다 등과 같이 젓소의 경우 홀스타인등록협회 또는 요크셔등록협회·랜드레이스등록협회·두록등록협회 등으로 품종별 등록협회로 거듭나야 품종별 개량사업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까지 했다.

물론 그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내 가축개량사업은 소의경우 국가단위 개량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돼지는 민간업체에서, 기타가축은 농가자율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한우 외의 종축가운데 대부분은 외래품종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우는 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육종농가제도를 도입하여 효

한우·젓소·종돈등 주요축종의 등록·심사·검정사업과 정액혈통확인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업무와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고 크게 보이는 것이다. 아무쪼록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정부와 학계 농가와 합심하여 선진국과 싸워 승전보(勝戰譜)를 올리는 그날까지 그 한가운데에 있었으면 한다

울성을 높였으나 젓소는 아직 개량의 효율성 문제로 개량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 백혈병·브루셀라 등 전염성 질병감염 빈도가 높아 검진결과, 탈락되는 개체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대·후대검정용 예비후보우 확보가 지난하다.

또 국내산 검정용 수송아지 구입가격이 저가로 농가에서 후대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젓소개량에 투자율이 낮아 충분한 두수의 후대검정우 확보가 힘들고 검정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도 단점이다.

종돈의 경우도 GGP·GP종돈장과 일반종돈장간의 기능 구분이 어렵고 농장간에 유전적으로 연결한 유전평가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종돈능력검정 참여율이 낮고 종돈능력검정과 유전평가가 개별종돈장내에서 이루어져 종돈장간 비교평가와 유전정보 교류가 힘들어 장기적으로 고능력 종돈선발과 이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아무튼 국내 축산업은 가축에 급여하는 사료곡물 98%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그에 준하여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현실이다.

다만 정확한 유전정보에 의한 유전능력이 뛰어

난 보증 씨수소와 종돈을 꾸준히 선발하고 우수한 정액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는 등 국내 유전자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경우 대외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한우·젓소·종돈등 주요축종의 등록·심사·검정사업과 정액혈통확인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업무와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고 크게 보이는 것이다. 아무쪼록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정부와 학계 농가와 합심하여 선진국과 싸워 승전보(勝戰譜)를 올리는 그날까지 그 한가운데에 있었으면 한다.

